

탄핵철회! 민주수호!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진행동

- 결성 기자회견 -

□ 일시: 2004년 3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참석자 소개
- 경과보고
- 조직구성
- 사업계획
- 결성선언문 낭독
- 질의응답

## 경과보고

- 2004. 3. 9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 159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음.
- 2004. 3. 10 대통령 탄핵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전시민 촛불집회가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음.
- 2004. 3. 11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전충남 6,254인 시국선언 개최
- 2004. 3. 11 대통령 탄핵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전시민 촛불집회
- 2004. 3. 12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 제2의 국치의 날 선포.
- 2004. 3. 12 대전지역 제민주단체(민중,시민,학생)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04. 3. 12 탄핵정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지역 제1차 비상시국회의 개최 (60여명 참석)
  - 탄핵철회 민주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함.
- 2004. 3. 12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시민 촛불집회 ; 2,000여명의 시민참여
- 2004. 3. 13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시민 촛불집회 ; 3,000~4,000여명의 시민참여
- 2004. 3. 14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시민 규탄대회 ; 5,000여명의 시민참여
- 2004. 3. 15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시민문화한마당 촛불문화제 ; 500여명의 시민참여
- 2004. 3. 16 탄핵정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지역 제2차 비상시국회의 개최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 결성회의
- 2004. 3. 16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시민문화한마당 촛불문화제 ; 200여명의 시민참여
- 2004. 3. 17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 전국조직 결성회의 (2시, 서울)
- 2004. 3. 17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 결성 기자회견

## 조직구성

### □ 조직구성 범위

- 범국민대선행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과 단체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적 한시적 연대기구
- 연대기구일 경우, 개별단체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당 및 노무현 대통령 지원단체(노사모 등) 등은 배제기로 한다.

### □ 참가단체(3월 17일 현재, 54개 단체 참가확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실련, 대전YMCA, 대전YWCA,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남북공동선언대전충남실천연대,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벨엘의집, 평화일꾼선교회,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문화연대준비위원회, 대전충남민예총준비위원회, 한밭생협, 대전홍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대전지부, 5.18민주유공자대전충남동지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원대민주동문회, 충남대민주동문회, 배재대민주동문회, 침례신대민주동문회, 한남대민주동문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지부, 한밭레츠, 나눔의집,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카톨릭청년회, 다함께대전지회, 참사랑일꾼회, 통일아리청년회, 6.15청년회, 전농충남도연맹, 전교조대전지부, 충남대총학생회, KAIST학부총학생회, 탄핵저지를위한KAIST학생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대전민주청년회동우회, 민족예술단우금치, 대전시민사회단체활동가협의회, 대전노동법률사무소,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 조직구성

▲ 대표자회의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대선행동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

▲ 공동대표단 : 탄핵무효 범국민대선행동 참가단체 중 각계 대표를 선정하여 구성

- 최병욱(재 야 / 대전충남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 안은찬(민중운동 / 6.15실천연대 공동대표)
- 송인준(시민사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 진경희(여성계 /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

- 박재묵(학 계 / 충남대 교수)
- 김용우(종 교 계 / 보문감리교회 목사)
- (노 동 계 / ) \*민주노총과 논의후 결정할 예정

▲ 집행위원회: 참가단체 각 실무책임자 또는 파견대표자로 구성

▲ 공동집행위원장

- 김경희(대전여민회 부회장)
-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 목사)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형돈(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의장)
- (민중노동계, 문화계 1인) \*추후 결합할 예정

▲ 공동 상황실장

- 박상우(시민사회계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 박치현(민중운동계 / 대전충남연합 사무처장)

▲ 법률지원단

- 단 장 : 이현주 변호사
- 지문변호사 : 송동호, 여운철, 김두현, 장동환, 손동광 변호사

▲ 위원회 : 추후 구성 예정

- 기획위원회
- 조직위원회
- 홍보위원회
- 대외협력위
- 문예위원회
- 재정위원회
- 정책위원회

▲ 네티즌, 시민 자원봉사단 : 현재 50여명의 네티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에 있음.

# 사업계획

## □ 운동목표

“탄핵무효”, “민주수호”

## □ 3대 운동방향과 과제

1. 탄핵무효 실현 : 탄핵에 대한 항의행동 확산 및 현재의 조속한 기각결정을 촉구
2. 부패정치 청산 :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운동 전개
3. 민주개혁 완성 : 87년 이래 수구부패 정치세력에 의해 지체되어온 민주개혁의 완성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 □ 운동원칙

“비폭력 평화운동”

## □ 사업계획

- 1) 탄핵무효 전국민적 평화행동 전개 : 탄핵무효까지
- 2) 대전시민문화한마당 촛불문화제 계속 개최
  - 기 간 : 3/12(금)부터 탄핵 무효까지. 매일 저녁 7시.
  - 장 소 : 중앙로 (대전역 또는 동방마트, 홍명상가 일대)
  - 평일집회 : 매일 저녁 7시 개최, 시민문화한마당 촛불문화제 형식 (1단계로 3월 21일까지)
  - 집중집회 : 매주 토요일 5시 개최(대전역), 범시민규탄대회 및 문화공연 형식
- 3) 탄핵무효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 전국적으로 1천만 서명을 목표로 대전지역 10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진행
- 4) 대전시민 항의행동 전개
  - 범국민리본달기 전개 : 근조 16대국회, 탄핵무효 검은색 리본
  - 태극기 조기계양 운동 추진 : 집, 차량, 사무실 등
  - 온라인 탄핵무효 확산캠페인 : 근조대문 만들기, 메신저 근조리본 달기(예:[謹弔]16대국회)
- 5) 모금운동 전개
  - 모금명칭 : 탄핵무효, 민주수호 범국민행동 모금
  - 모금방법 : 촛불집회 현장모금, 온라인 모금 등
- 6) 각계각층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항의집회, 토론회 등 개최
- 7) 홈페이지 개설 또는 카페 개설 등을 통한 네티즌 참여운동 활성화

## 결성선언문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진행동 결성 선언문

2004년 3월 12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되었다.

분단과 전쟁, 군부독재의 지난함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극복하고 이룩해낸 민주주의를 일거에 후퇴시킨 폭거의 날이다. 권력의 유지를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썩은 정치세력이 합법을 가장한 '의회구테타'를 자행한 찬탈의 날이다.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의 삶과 희망과 미래에 대해 회의를 품게된 참혹한 자기부정의 날이다.

우리는 3.11 시국선언으로 대통령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법리적 근거도, 상식적 설득도, 국민적 공감대도 그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략적 발상으로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탄핵발의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통과시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오로지 총선을 위한 정략으로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안을 결의하였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다수의 횡포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는 촛불시위가 전개되고 있으며, 반대여론은 70%대를 넘어선다. 87년 6월 항쟁을 연상케하는 이 거대한 물결은 낡은 정치세력의 의회구테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분노이다. 그러나 구테타를 자행한 낡은 정치집단은 국민의 자발적인 민주수호 의지와 분노와 저항의 진의를 일부세력의 선동과 언론보도 행태에 의한 거품으로 폄하하고 여전히 총선에서의 이해득실만을 저울질하는 오만과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뜻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우리는 울분을 넘어 허탈한 실소만이 나올 뿐이다.

이제 우리는 평화적이되 흔들림 없는 의지로써 자신들의 마지막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낡은 정치세력을 탄핵하는 촛불을 들고 맞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회구테타를 자행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역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낸 민주주의를 지키는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통해 우리의 정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소중함을 마련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염원하며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우리의 행진은 정당하며, 대진시민들 모두가 우리의 행진에 동참하리라 믿는다. 미래와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빛나는 역사의 대장정에 온 국민이 함께 할 것이다.

2004년 3월 17일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진행동